

##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9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권성동 · 김상훈  
강선영 · 한기호 · 윤영석  
서천호 · 김태호 · 김승수  
유용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,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.

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. 또한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도 군사기밀의 탐지·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, 법정형이 낮거나 ‘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’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 미국, 독일,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‘외국’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

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(안 제13조).

##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4항제1호 중 “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”를 “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도”를 “사람은”으로, “처한다”를 “처하고, 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3항의 형에 처한다”로 한다.

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④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제3항의 형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제1조(적용대상자) ① ~ ③ (생략)	제1조(적용대상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 ·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</u>	1. <u>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</u> ---
2. ~ 13. (생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간첩) ① · ② (생략)	제13조(간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④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제3항의 형에 처한다.</u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	⑤ ----- ----- -----

<u>사람도</u> 제1항의 형에 <u>처한다</u> .	<u>사람은</u> ----- <u>처하고, 제</u> <u>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사</u> <u>람은 제3항의 형에 처한다</u> 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